

쇼트트랙 '金사냥'... K 혼성 계주 첫 출격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최민정

2022년 베이징선 '무관' 수모
이번 밀라노서 명예회복 선언
女 에이스 최민정 선봉에 나서
男 1000m·女 500m 예선 출전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레이 혼
성 계주로 2026 밀라노·코
르티나동계올림픽
을 출발한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오후 7시59분(한국시
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혼
성 계주 경기에 나선
다.

이번 대회 쇼트트
랙의 첫 메달이 결정
되는 종목으로, 금메달 2
개 이상을 목표로 밀라노에 입성한 쇼트
트랙 대표팀의 컨디션이 가능해 볼 경기
이기도 하다.

한국은 혼성 계주가 처음으로 올림픽 정
식 종목이 된 직전 2022년 베이징 대회에
선 준준결승에서 넘어져 아쉽게 메달 획득
에 실패한 터라 선수들은 이번엔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남녀 선수 4명이 500m씩 맡아 2000m
를 달리는 혼성 계주는 초반 레이스가 중
요하게 여겨져 한국 대표팀은 여자 '에이
스' 최민정(성남시청)을 선봉에 세울 계획
이다. 혼성 계주에 앞서 최민정과 김길리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가 이날 여
자 500m 예선에 출전하며, 임종언(고양시
청)과 황대현(강원도청), 신동민(고려대)
은 남자 1000m 예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 종목들은 예선 이후 한국시간 13일
오전 준준결승부터 결승까지 이어진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도 밀라노 스피
드 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첫 실전에 들
어간다.

여자 단거리의 쌍두마차 김민선(이정부
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이 1000m 경기
에 나선다. 이들 모두 500m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전 환경에서 빙질에 적응하고
환경에 익숙해질 기회다.

실상의 유망 종목 중 하나로 꼽히는 프
리스타일 스키 모굴은 이날 오후 7시15분
라비노 에어리얼 모굴 파크에서 남녀 예선
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모굴은 스키를 타고 1m 남짓한 높이의
눈 둔덕(모굴)으로 뒤덮인 코스를 빠르게
내려온 뒤 점프대에서 날아올라 공중 연
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글·사진=연합뉴스

린지 본, 두 번째 '헬기 이송'
눈물로 끝난 '라스트 댄스'

동계 올림픽 '라
스트 댄스'에 나섰
다가 레이스 시작
13초 만에 크게 넘
어지며 헬리콥터
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스키 스타'
린지 본(41·미국·사진)이 왼쪽
다리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다.
본은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
르티나담페초의 토파네 알파인스
키 센터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
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크게 넘어져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다.

깊은숨을 몰아치고 힘차게 출
발선을 나선 본은 경기 시작 13초
만에 두 번째 곡선 주로에서 오른
팔이 기둥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
고 설원에 강하게 충돌하며 뒹굴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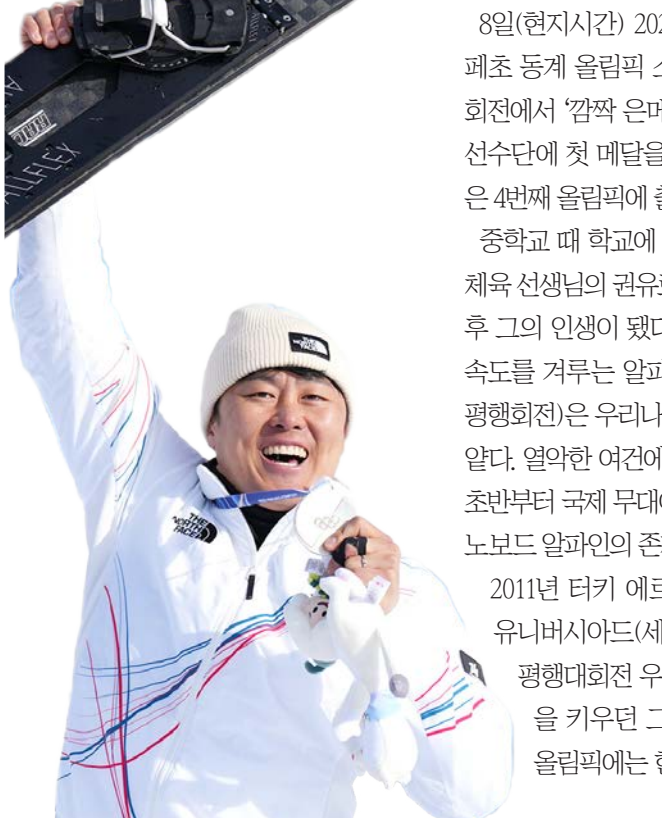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슬로
프를 등에 대고 넘어진 본은 재빨
리 투입된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들것에 몸을 고정한 채 헬기를 타
고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30일 스위스에서 열린 월
드컵에 출전했다가 경기 중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
쳐 헬기를 타고 이송됐던 본은 아
흐레 만에 또다시 큰 부상으로 헬
기 신세를 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

본은 코르티나 지역 병원 중환자
실로 옮겨져 1차 치료를 받은 뒤
트레비소 지역 대형 병원으로 옮
겨졌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왼쪽 다
리 골절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형
외과에서 수술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스키협회도 "본의 상태는 안
정적이다. 미국과 이탈리아 의료
진이 집중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전
했다.

네 번째 올림픽... 37세 김상겸 '인간승리'



8일(현지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
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
회전에서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김상겸(37·사진)
은 4번째 올림픽에 출전한 베테랑이다.

중학교 때 학교에 스노보드부가 생기며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접한 스노보드는 이
후 그의 인생이 됐다. 스노보드 중에서도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종목(평행대회전·
평행회전)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저변이
얕다. 열악한 여건에서 김상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며 한국 스
노보드 알파인의 존재를 알렸다.

2011년 터키 에르주룸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평행대회전 우승을 차지하며 경쟁력
을 키우던 그는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는 한국 선수 최초로 평행

국내 스노보드 알파인 선구자
30대 중반에 들어 서서히 두각
8강전에서 세계 1위 꺾어 파란
당당히 銀, 韓 400호 메달 선물

대회전과 평행회전 종목에 신봉식과 함께
출전했다.

소치에서 두 종목 모두 예선에서 탈락했
으나 올림픽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에 한
국의 이름을 처음으로 남겼다.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회전 종
목 동메달을 획득한 그는 고향에서 열린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메달을 꿈꿨다.
평창에선 16명이 겨루는 결선 무대를 밟

았지만, 첫판에서 탈락하며 메달엔 닿지
 못했다.

평창 대회 평행대회전에서 후배 이상호
(백석원가드)가 한국 스카·스노보드 최초
의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엔 대체로 이상
호에게 가려져 있던 김상겸은 2022년 베이
징 동계 올림픽에선 다시 예선 24위에 그
쳐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의 선구자나 다름
없지만, 김상겸은 유니버시아드나 아시안
게임 외에는 큰 국제대회와는 별로 인연이
없었다.

앞선 세 번의 올림픽에서 모두 아쉬움을
남겼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021년 평
행대회전 4위가 최고 성적이다.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메달권
에 들기 시작한 것도 30대 중반에 접어든
2024년부터였다.

그는 2024년 11월 중국 메이린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처음으로 월드컵 시상
대에 섰고 지난해 3월 폴란드 크르니차에
서 열린 대회에선 동메달을 추가했다.

절치부심해 4번째 올림픽을 준비했으나
직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상호가
강력한 메달 후보로 꼽히던 가운데 여전히
메달 후순위로 거론되던 김상겸은 8일 예
선은 8위로 마쳐 8년 만에 결선에 오르더
니 결승까지 진격해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특히 8강전에서 이번 시즌 월드컵 랭킹 1
위의 개최국 이탈리아 선수 롤란드 피슈
날러를 따돌린 것은 대회 최고의 이변이
었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상대 선수가 모두
완주하지 못하는 행운도 섞였지만, 김상겸
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으로 당당히 결
승 진출과 은메달을 알렸다.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공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

